

종합·해설

여야 '총선드림팀' 뜯는다

새누리 '박근혜 원톱체제'...민주 한명숙·대권주자 '공동위원장' 유력

오늘 선대위 발족 본격 선거전 돌입

공천을 마무리 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21일 선거대책위원회회를 꾸리고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원 톱 체제'가 유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매머드급' 진영이 꾸려질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21일 선거대책위원회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선대위가 내일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단독위원장 체제를 출범하는 것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2년만이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박 위원장의 중량감을 부각시키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황영철 대변인은 전날 비대위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이 단독이나 공동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비대위원 전원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친이(친이명박)계

안상수 전 대표, 친박(친박근혜)계에서 이탈한 김무성 의원 등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윤선 의원과 이번에 비례대표 8번으로 영입된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공동대변인에 내정됐다. 선대위 고문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강재섭 전 대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한승수 전 총리와 김진선 광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이르면 21일 선대위

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가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당내 대선주자들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문재인, 이해찬 상임고문을 포함해 당내 유력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선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손학규, 문재인, 정동영 등 대선주자와 외부 인사들을 포함한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야권연대가 성사됨에 따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는 물론 시민사회 인사들 망라해 야권 공동선대위를 꾸려 총선을 치른다는 복안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성사된 야권연대를 기반으로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대위에는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야권 통합의 감동을 정권심판론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선관위 회의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순천, 강진, 무안 치지단체장 보궐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남지역 각 정당 관계자들과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통합진보, 광주 8곳 모두 공천...전남은 7곳에

진보신당은 광주 2곳만 후보 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광주·전남지역 4·11 총선 후보자를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도 후보를 확정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통합진보당은 광주 8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를 출마시켰고, 전남은 11개 선거구 중 7곳에 후보를 냈다.

통합진보당 광주지역 후보는 ▲김관희(동구) ▲정 호(서구 갑) ▲오병윤(서구 을) ▲이민원(남구) ▲이재

언(북구 갑) ▲윤민호(북구 을) ▲장원섭(광산 갑) ▲황차은(광산 을)에 비후보 등 8명이다.

전남지역은 ▲윤소하(목포) ▲강용주(여수시 갑) ▲김선동(순천·곡성) ▲전종택(나주·화순) ▲유현주(광양·구례) ▲박형기(장흥·강진·영암) ▲김동주(담양·함평·영광·장성) 등 7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전남지역 나머지 4곳의 선거구에 후보를 더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20일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 19개 선거구 중 광주 2곳에만 후보를 냈다. 광주 북구 을 선거구에는 안영돈 진보신당 광주 북구 당협위원장이, 광주 광산구 갑에는 윤영대 경기 뉴타운 재개발 반대연합 상임위원장이 출마표를 던졌다. 진보신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22~23일 이전까지 서구를 선거구에 대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종석 불출마 성동 을

민주, 홍익표 교수 공천

민주통합당은 20일 임종석 전 사무총장이 사퇴한 서울 성동 을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공천했다.

홍 교수는 북한경제 전문가로, 참여정부에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아 남북경협과 10·4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이와 함께, 전북 전주 완산갑 지역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김운덕, 유창희, 유희태 후보 3인의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병훈 '클린선거 7·7·7운동' 선언

이병훈 무소속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0일 투신사망 사건으로 실추된 광주 동구 유권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클린선거 7·7·7' 운동을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7층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20명과 함께 '클린선거 7·7·7 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클린선거 7·7·7 운동은 ▲금권·관권·동원·네거리·흑색·줄세우기·거짓 공약 등 7무(無) 지키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 불법선거 감시단 운영 ▲선거운동 전 하루 7분간 공명선거 교육하기 등이다.



직과 함께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특히 "은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서 "은퇴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원 "문화·교육특구사업 시급"

통합진보당 이민원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20일 광주 진남초교·백운초교 등을 방문, 학부모들과 간담회에서 "남구를 문화·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선 인재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구현할 사업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남구는 문화·교육특구에 걸맞지 않게 예산지원 등이 부족하다"라며 "해위유학 정보와 관련된 기능과 학생들의 일상 학습활동, 과외활동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글로벌문화·교육센터(가칭)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강열 "경선 참여자 출마 기만행위"

무소속 김강열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 했던 후보들이 동구가 무공천지역으로 정해지자 최근 지방의원 등을 동원, 출마 선언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치혁신을 바라는 동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동구가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게 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높은 정치의식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후보들의 행태를 가만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남준 "노인 일자리 창출 노력"

무소속 정남준 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이비 붐'(baby boomer)의 본격 퇴

민주, 재벌개혁 3대 핵심 과제 발표

대기업 출총제 규제 한도 30%

배임·횡령 기업인 執猶 불가능

민주통합당은 20일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홍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3대 핵심 과제로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10대 정책으로 우선 상위 10위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기로 했다. 출자 한도는 순자산의 30%로 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재벌의 소유 구조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자본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나아가 담합 등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정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여서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일괄 참여 제한을 통한 '통행세' 근절,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공약을 내놓았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천·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항고혈압 제제와 항고지혈증 제제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수축기 혈압(SBP)130mmHg 이상, 이완기 혈압(DBP) 80mmHg 이상,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holesterol) 100mg/dL 이상)
- 대상자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참여기간

-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12~14주간 총 4~5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8주 동안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제공되며, 정기적인 검진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혈액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및 소정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시기관: 광주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문의처: 010-4095-1850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 업 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 업 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 지 면 적	2,411.20㎡ (729.39평)		
용 도 지 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 폐 율	59.53%(법정 : 60%)	용 적 율	478.73%(법정 : 480%)
구 모	지하0층 지상9층	최 고 높 이	55.50m
건 축 면 적	1,435.47㎡ (434.23평)	건 축 연 면 적	11,543.18㎡ (3,491.81평)
주 차 대 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 용 승 강 기	부설주차장 : 대지면적 201.3평, 연면적 1,233.4평, 지상3층 철골조		
에 스 케 레 이 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용 도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개요

층 별	면 적	평	총 고	용 도
1 층	1,374.92	415.91	4.8m	근세, 업무시설, 기계실
2 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 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 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 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 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 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 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 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 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 매 예 정 가 격	12,000,000,000원
현 공 정 율	약 85% 진행
적 용 가 능 용 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휘트니스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 시설 병원 등 최대층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사설건,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